



부산일보- 부산외국어대학교

상호 업무협력 협약서



부산일보와 부산외국어대학교는 상호 밀접한 교류와 협력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 본 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협력체계 구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 (협력내용)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협력한다.

1. 원활한 인적교류를 위한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
2.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협력 체계 구축
3. 기타 양 기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

제3조 (추가사항)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분야가 발생할 경우 양 실무책임자의 협의를 거쳐 추가 협력한다.

제4조 (효력)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상호 이의가 없을 시에는 자동으로 연장된다. 또한 본 협약서는 2부를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제5조 (비밀 및 보안유지) 본 협약서와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기밀사항 또는 개인정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, 협약서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존속된다.

2018년 9월 5일

부 산 일 보

문화사업국장

박 영 홍 (인) 

부산외국어대학교

대외협력처장

김 철 준 (인) 